

‘초고령사회’ 담양군, 인구감소 대응 나섰다

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 35.5% ‘모두가 행복한 녹색명품도시’ 구현 269억 투입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 사업 발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담양군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 편성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회를 열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담양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35.6%로 2014년 이미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한 상태다.

담양군은 ‘모두가 행복한 녹색 명품도

시, 담양’을 비전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생활인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핵심 인재 양성,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전략목표, 15개 사업을 담았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으로 확정된 11개 계속 및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69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45억 4100만원) △담양삼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170억원) △공공임대주택(22억원)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10억원) △창업형 영농시설 지원(12억 5000만원)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3000만원) △재배실습기회 제

공(3억 2000만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체류 지원(2억 5000만원) 등이다.

담양군은 올해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심의회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광선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인구 감소는 담양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며

“다양한 계층

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략으로 모두가 행복한 녹색명품 도시 담양을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찾아가는 민원창구 운영 함평군, 친절 행정 구현

함평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한 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원 행정 실현에 나섰다.

19일 함평군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창구’가 지난 18일 함평읍 월봉경로당에서 운영됐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민원창구’는 단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그 외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안내, 그 결과를 전화 또는 서신 등으로 통보하고 있다.

군은 군민들이 언제나 간편히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부24 시스템 이용 교육과 현재 각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교육 등도 실시해 전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얻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절 행정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민원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주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찾아가는 결핵 무료 검진’ 추진 담양군, 경로당 어르신 등 대상

담양군이 19일부터 결핵발병 고위험군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진행한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요증상은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발열, 체중감소 등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23년 기준 결핵환자 1만9540명 중 65세 이상 노인층은 1만1309명(57.9%)으로 노인층의 결핵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광주·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검진 차량을 통한 흉부 엑스선 촬영 후 실시간 판독해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추가로 객담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복약 및 치료 관리,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검진에서는 대상자 673명 중 유소견자 46명을 추가로 검사해 전원 음성으로 확인했다. 군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경로당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고 연중 검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결핵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에서 쉽게 발병할 수 있어 정기적인 결핵 검진이 중요하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결핵 예방을 위해 꼭 방문해서 검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화순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순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산지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찰보리 아카데미 제과 기능사 교육 영광군, 켈리 등 12종 이론 강의

영광군이 ‘2025년 찰보리 아카데미 제과 기능사 과정’을 운영한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제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2회에 걸쳐 군남면 ‘영광 찰보리 어울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켈리 롤 케이크, 마드레느, 다크와즈, 치즈 케이크 등 다양한 제과 실습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생들은 반죽부터 구워내는 과정까지 직접 실습을 통해 실력을 쌓게 된다.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인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 황순욱 겸임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민들이 마네킹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고 있다. 화순군은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한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화순군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11월까지 운영한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일상 속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응급처치의 기

본 이론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이다.

관내 지역 주민·직장인·학생 등 누구나 교육에 참여가 가능하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신청·접수는 보건소 의약관리팀(061-379-5364)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결의

지속가능 농업·농촌 기반조성 다짐

농협광주본부는 19일 광주본부대강당에서 (사)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대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역 활력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쌀 소비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조직 활동을 전개한 우수분회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광주농협·하남농협 분회가 농협본부장 표창장을, 임곡농협 분회가 시지회장 표창장을 수상하



19일 농협광주본부는 (사)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대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호 본부장은 “고향주부모임이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문화를 실천하는

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위급한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